

## 1/28(금) 레위기 1-4장 예배자인가, 시청자인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11:45).”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금송아지>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들은 언약을 간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인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죄와 더러움, 불결과 부정함은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습니다.  
정결과 거룩함만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을 위한 전문서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1:2, 4:2, 7:22).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거룩함>을 가르치며(10:10-11),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제의와 성결한 삶을 훈련받을 것입니다.  
이로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출19:6).

우리는 제사장이 제의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준비에서부터 진행되는 과정마다 <백성>의 역할이 큽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물에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제단에 불을 붙이고 제물을 불사릅니다.  
백성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신성한 제의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각각의 제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백성)의 역할을 살피면서 통독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❶ 나는 예배자입니까, 시청자나 관람객입니까?  
❷ 목회자나 인도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예배드리지 않습니까?